도, 공기업 ·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제5차 출자 ·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개최… 경영평가 5개 기관 · 경영효율화 점검 2개 기관 '최고등급' 획득

전북도 공기업 · 출연기관에 대한 2023년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다.

전북도는 22일 제5차 출자 ·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 도 산하기관(공기업 1, 출연기관 15)에 대한 '2023년도(2022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 · 의결했다.

평가 결과 가등급은 5개, 나등급은 7개, 다등급은 4개이며 라등급과 마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다.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남원의료원, 전북여성가족재단,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다.

특히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전년도 평가에 '나등급'을 받았으나 도 정책반영 · 사회적 가치실현 등 공통지표 부문에서 점수를 인정받아 등급이 상승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14개 기관은 전년과 동일한 등급을 받았으며, 올해 첫 평가를 받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2021년 개원)은 나등급을 받았다.

한편, 5억원 이상 재정을 지원하고 상근직원 10인 이상인 위탁 · 보조기관(6개 기관)에 대해 실시한 경영효율화 점검 결과, 전북교통문화연수원과 전북장애인복지관이 '가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라등급'을 받았던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금번 평가에서는 2개 등급이 상승한 '나등급'을 받았다.경영평가는 기관 성격에 따라 I유형(경제 · 산업) 8개 기관과 II유형(사회문화 · 복지) 8개 기관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등급별 기준점수에 차이를 두어 실시한다.

전북도는 지난 3월부터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49인의 경영평가단을 통하여 서면심사, 현장평가, 기관장 면담평가 등을 실시하고 내 · 외부 만족도 조사를 거쳐 지난 한 해 동안의 경영실적을 평가해왔다.

평가단은 평가의 공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ESG 경영체계 도입을 위한 노력, 재난 · 안전 관리 등 경영전략 및 사회적 책임 강화와 더불어 전년 대비 개선 노력과 성과를 중점에 두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에는 도의회에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10월에 경영효율화 컨설팅 및 임직원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경영평가 결과 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12월에 전북도 출자 ·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시 경영개선계획을 보고받고, 경영평가 결과를 기관별 임직원 성과급 및 기관장 연봉과 연계하여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도 평가에 대비하여 평가지표도 개선한다.

정부기조에 따른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효율화' 지표 배점 상향 조정,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노력도' 가점 지표 삭제 등 지난 4월 출자 ·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고, 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표 간 유사 · 중복 지표를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도민의 편익 제고와 공공복리 향상을 위해서는 공기업 · 출연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평가 실시와 기관 혁신을 통해 도 산하기관의 지속적인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도, 예비 청년마을 성과공유회 개최

청년마을 조성으로 지역정착 유도 · 지역활력 제고 기대

전북도는 22일 전북도청에서 '2022년 하반기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선정된 예비 청년마을 5개소와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5개 청년마을의 그간 활동성과를 발표 및 공유하고, 사업종료 이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후속계획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청년마을을 조성해 지역활력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전북도만의 특색있는 사업이다.

작년 상 · 하반기 10개 단체에 각 4,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상반기 5개 단체는 작년 12월 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 5개 청년마을은 이달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익산 '문화예술공동체 미담보담 협동조합'(대표 장민지)은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이음길 연구소'를 조성하고, 여러 분야의 청년니즈를 반영한 새로운 컨텐츠를 기획하여 지역에서 청년들의 활동영역을 넓혔다.

익산 '(유)사각사각(대표 권순표)'은 목공을 기반으로 제로웨이스트를 목표로 한 지역탐색, 지역살이, 업사이클링 팝업북 제작 등 청년이 주체가 된 친환경마을을 조성했다.

남원 '같이앤가치가게 협동조합(대표 황승미)'는 B급 농산물을 활용한 디저트 개발, 공예교육, 공동육아, 지역탐방 농촌체험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한 청년엄마들의 역량강화 및 지역정착을 도모했다.

장수 '장수군 청년네트워크협의회(대표 김미예)'는 청년부모를 대상으로 육아경력단절 타파, 아이 심리파악 프로그램 등 아이와 함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청년 네트워크를 활성화했다.

고창 '해리포터즈(대표 홍용선)'는 인문공간 '책마을해리'와 지역 기후위기 대응활동을 연계한 청년활동을 진행하여 청년출판캠프, 주말 책학교 프로젝트, 청년기록자 양성 등 북스테이 청년마을을 조성했다.

이 가운데 '(유)사각사각(대표 권순표)'은 전북 청년마을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하여 올해 행안부 청년마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영상 전북도 청년정책과장은 "이번 성과공유회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과 성장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둥근숲협동조합(전주), 코리아콘텐츠협동조합(정읍), 나우원플러스(남원), (주)파머스에프앤에스(무주), 산골낭만(무주) 등 올해 선정된 5개 청년마을은 단체당 8,000만원이 지원되어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5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닭 계열화사업 운영 자금 510억원 추가 확보

전북도는 22일,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2023년도 하반기 축산계열화사업 운영자금(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3개 업체에 51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닭 계열화사업자는 (주)하림, (주)동우팜투테이블, (주)참프레로 전국 800억 원의 64%인 510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계약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농장운영 및 닭고기 수급안정을 위한 계열화사업자의 입식 확대를 위해 지원된다.

한편, 지난 상반기 3개 업체(농업회사법인 한송주식회사, (주)코리아더커드, 농업회사법인 (주)유파에프엔비)에 148억 원의 축산계열화사업 운영자금을 확보하여 추진하였다. /김재훈 기자

을지훈련 상황회의 개최 22일 전북도청 충무시설 전시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을지훈련 상황회의를 갖고 있다.

도정 혁신 위한 벤치마킹 '준비 착착'

기획조정실 소관 벤치마킹 아이디어 발굴 보고회 개최

전북도는 22일 기획조정실 주재로 '기획조정실 소관 벤치마킹 시즌2 아이디어 발굴 보고회'를 도청에서 개최했다.

노홍석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정책기획관과 각 과장, 22개 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혁신을 위한 각 팀장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전북도가 실시하는 팀별 벤치마킹은 중앙부처 또는 다른 시 ·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전라북도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접목해, 전북 발전의 동력을 만들고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처음 시작됐다.

김관영 지사는 '도지사와 함께가는 정책소통', '일자리 종합맵 구축' 등 1차 벤치마킹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출장 시 출력물로 지참할 정도로 우수사례들이 많이 발굴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도정을 기획하고, 현안을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의 역할에 걸맞게, 도정 전략회의(가칭), 공약사업 관리 방안 등 도정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발굴됐다는 후문이다.

또한, 준비한 아이디어를 발표 · 공유하며,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실제 적용 시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후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달까지 아이디어를 점검 · 개선하여 도지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각 팀장들이 발표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활성화 간담회

도-유관기관, 혁신타운 운영 활성화 · 자립방안 논의

전북도는 22일, '전북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하 혁신타운)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유관기관 간담회'를 혁신타운에서 개최했다.

간담회는, 도-군산시,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사회적경제연대회의, 군산대 등 관계기관 10명이 참여해 혁신타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기관별 혁신타운 활성화 및 자립방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한 후, 기관 간 의견을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병하 도 금융사회적경제과장은 혁신타운이 도내 사회적경제 거점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혁신타운 시설을 활용한 특화사업 보완 ·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인남 전라북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동체정책팀장은 혁신타운 자립 및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중기부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기업 성장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김상영 군산대 산학협력단 부단장은 혁신타운 일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기업 입주 공간을 늘리고, 혁신타운 자립률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는 입주기업 대표(한국문화예술교육연구원 송석문 대표)도 참여하여 혁신타운 입주 8개월간 느낀 소회를 말하고 입주기업을 연계한 시범사업 실시를 제안했다.

전북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토대로 특화프로그램을 보완 · 개발하고, 입주기업 자립방안을 모색하여 혁신타운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병하 도 금융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도-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혁신타운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기관에서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내실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도 사회적경제 거점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전국 최초 2019년 산업부 공모에 선정돼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9,647㎡ 규모로 준공해 2023년 1월부터 본격 운영 중이며, 전북도는 혁신타운 개관의 공을 인정받아 올 6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김재훈 기자

2023년 2학기 전주교육대학교 · 우석대 · 군산대 원광대 ·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모 집

스피치 · 긴장해소 · 표현력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현대인의 인기과목에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바랍니다.

전담교수 김양옥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전북대학교 토론과 면접(교양과목) 담당교수 역임
• 한국스피치 · 웅변연합회 전북회장 • 전주매일신문사 국사장
• 전북인재개발원 및 기관 · 단체 등 인기 강사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심리상담사 • 스피치 · 서동숭 지도자
• 저서 "365 스피치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 야간)	전주, 임실, 완주, 김제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코칭(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기법과 리더쉽, 스피치&웃음코칭(주)	익산, 논산, 김제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쉽(화), 스피치지도사(수)	군산, 서천,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코칭 등)(주, 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	남원, 장수, 순창

상담전화: 285-6676, 010-7304-5665(주, 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해 9월에 학교별로 개강